

박근혜의 대(對) 노동계급

쉬운 해고, 낮은 임금

“노동개혁”의 핵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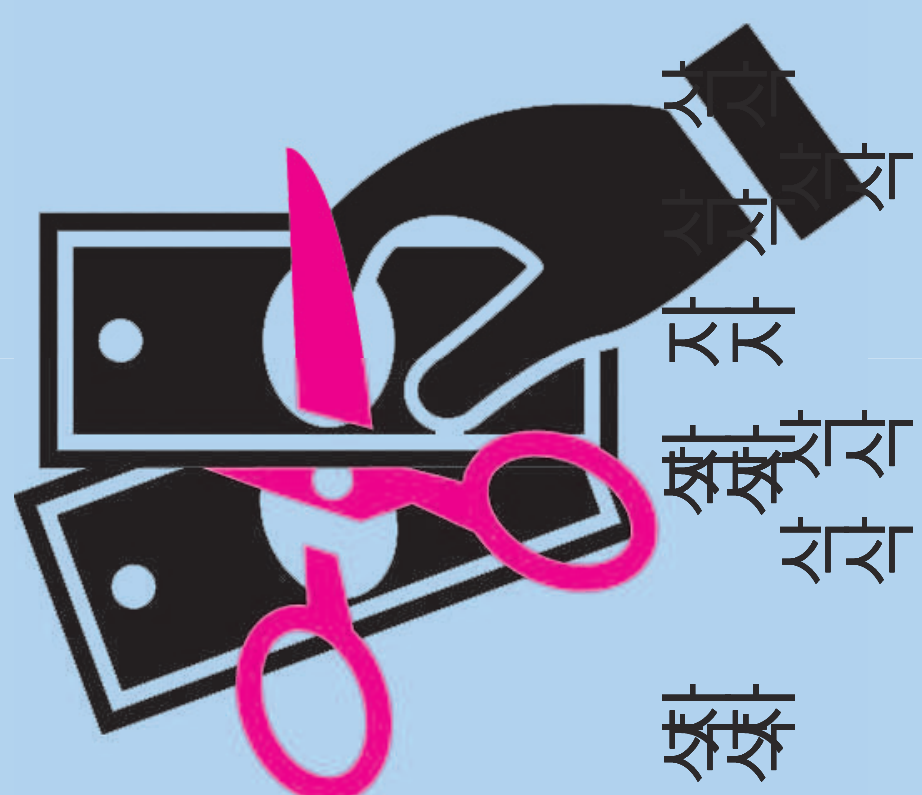
쉬운
해고



쉬운 해고

- 부도·파산 위기 아니다
 - “저성과자”로 낙인 찍어
- [추석 전후 가이드라인]

낮은
임금



임금 삭감

- 고령자 임금 삭감(임금과
 - 성과 경쟁 부추겨 임금
- [추석 전후 가이드라인]

더
많은
보

더 많은 보



- 정규직화는 기대 말고
 - 기간제 기간 2년 → 4년
- [11월 국회에서 법 개악]



사장 맘대로

- 미조직·비정규직·취약직
 - 노조 있는 사업장의 단
- [추석 전후 취업규칙 7]



장시간 노동

- 최소 8년간 주 60시간
 - 수당 없이 사용자 맘대로
- [11월 국회에서 법 개악]



통상임금

- 전체 사업장 3분의 1에
 - 주택수당, 체력단련비 등
- [11월 국회에서 법 개악]

이거

비정규직으로 살라!

년 연장, 고령자·제조업 일부 파견 허용

(기간제법, 파견법)]

로 취업규칙 개악

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

협에도 정부가 개입해 시정명령

가이드라인 발표]

동 유지

근무 허용. 중복할증 없애 휴일근로 수당 축소

로 노동시간 줄였다 늘렸다(탄력근무제 확대 등)

(근로기준법)]

범위 축소

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(재직요건 규정)

등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 항목도 제외될 수 있음

(근로기준법) → 직후 통상임금 제외항목 시행령 발표]

